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연구

송민교
국립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A Study on Mediated Effect of Resilience between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Perceived by Higher Graders of Primary School and Their Problem-Solving Skill

Min-Gyo Song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Ch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신체적, 정서적 갈등 속에서 다양한 문제와 도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문제해결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문제해결능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년 아동 237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자료는 SPSS 23.0과 AMOS 23.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모두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와 모의 양육태도는 모두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 상담 및 자녀교육에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보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들에게 부모의 다정하고 따뜻하며 자율성을 촉진하는 양육 방식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Higher grade period of primary school is when children require the problem-solving skill for various problems and challenging situations concerning the physical and emotional conflicts. In addition, the roles of the family and parents of the children in achieving the required problem-solving skill are very important. Henc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resilience, which significantly affect the problem-solving skill of the higher graders in primary school. In particular, a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12 to 28, 2021, with 237 higher graders in primary school. The survey data were then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higher graders in primary school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resilience. Further, th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higher graders in primary school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problem-solving skill. Additionally, the resilience perceived by higher graders in primary school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problem-solving skill. Finally, resilience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higher graders in primary school and the problem-solving skill.

Keywords : Higher Grade of Primary School,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Problem-Solving Skill, Resilience, Mediated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Min-Gyo Song(Changwon Univ.)

email: song-song@hanmail.net

Received April 11, 2022

Revised May 4, 2022

Accepted May 6, 2022

Published May 31, 2022

1. 서론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청소년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기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이다 [1]. 또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 즉, 가족, 학교, 사회 등과의 관계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급변을 겪으며 혼란을 겪기도 하고 가족관계, 또래 관계 등 대인관계와 더불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매 순간 주어진 과제나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해 좌절감을 겪거나 우울감, 실패감 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꿈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이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이유로 자신들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들에 대한 미숙한 대처능력을 들 수 있다. D'Zurilla와 Nezu(1990)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나아가는 중간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갈등 속에서 다양한 문제와 도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문제해결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으며, 가정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하였다[1]. 특히 가정은 인간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며 인간의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그들의 부모이며, 그렇기에 세상에 나온 수많은 이론들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회가 점차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예전보다 부모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갖는 여러 경험들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더욱 의미 있는 요소가 되었다. 즉, 부모-자녀관계가 바람직하면 자녀의 정서적 성장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부모-자녀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아동의 문제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2].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3],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적인 태도가 자녀의 지적-정서적 발달과 정적상관이 있고,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는 자녀에게 안정감, 자신감을 가지게 해준다[4]. 김해선과 이지민(2018)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주장하였으며,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인 부모의 양

육태도는 자녀가 외적 스트레스를 쉽게 이겨내고 개인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아탄력성 향상에 선행 변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5].

부모와 자녀의 초기 경험은 아동의 대인 관계 및 적응 양식을 비롯한 성격 형성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6].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로 인하여 아동의 정서가 불안정하게 될 경우 아동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비행, 공격성과 같은 외면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7]. 이와 더불어 아동은 타인과의 사회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행동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부모의 양육태도는 개인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아동은 사회적 지반이 많을수록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어, 가정에서의 사회적인 지지기반이니 양육태도의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Rutter (1985)는 스트레스적인 상황 혹은 환경적으로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잘 적응하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아동들을 발견하였다[8].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하였고,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을 연구한 초기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한 현상이나 기저의 보호과정에 기여하거나 또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고자 시도하였고[9], 이를 통해 자아강도, 유능성, 정서적 안정,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능 구조 등의 개념들을 성공적인 적응의 긍정적인 요소들로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Ciechettie와 Toth(1991)는 같은 연구자들은 위협스러운 환경 하에서 다른 사람들이 발달적 이탈을 일으키는 데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개인의 기능을 이해하고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10], 이런 강한 개인적 특성인 '자아탄력성'은 어려운 환경에서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1]. 즉 개인 내적 요인 중 자아탄력성은 상황적 요구에 알맞게 융통성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아동의 문제해결능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 대표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아동의 문제해결능력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예방책을 탐색하여 아동 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도록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 문제해결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자아탄력성은 부모양육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다양한 학자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Schaefer(1959)는 부모양육태도를 부모 혹은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 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2], Fishbein과 Aizen(1975)은 부모양육태도를 하나의 문화적인 양식으로 간주하였다[13,14]. 즉,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서 양육하는 형태의 행동에 관한 경향성과 반응에 대한 양식으로서 가족구성, 가족 분위기, 가족의 경제적 상황, 가족의 사회문화적 배경,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인 요소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모양육태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구성되므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부모양육태도를 정의하는 학자에 따라서 부모양육태도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Symonds(1949)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임상적 경험을 참고하여 부모양육태도를 최초로 체계화하였다[15,16]. 그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유형을 거부-수용(rejection-acceptance),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을 각각 양극으로 설정하여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Schaefer(1959)는 30년 동안 중단 연구를 진행하였다[12,17]. 그는 중단 연구를 통해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로 구분하여 두 개의 축을 통해 한 원형의 모형을 제시하여,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자율적 유형, 적대-자율적 유형, 적대-통제적 유형, 애정-통제적 유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Becker(1964)[18]는 Schaefer(1959)[12]의 부모양육태도 모형을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에서 3차원의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다[19]. 이는 '제한-허용', '온정-적대'에 '과보호-방임'의 한 차원을 더 높여서 세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관용적, 민주적, 무관심, 신경과민적, 권위주의, 과보호, 엄격한 통제, 조직적 효

율성, 총 8개의 양육태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박영애(1995)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몇 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각 하위요인별 행동수준을 고려하여 각 차원이 서로 교차 결합되는 상황을 유형화하였다[20]. 박영애(1995)는 Schaefer(1959)가 유형화한 애정-적대, 자율-통제를 기본으로 하여, 애정·수용, 거부·적대, 통제, 그리고 자유를 각각의 차원으로 간주하여 이들 네 가지의 차원을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12,20]. 이 접근은 차원 구조의 경직성과 이원론적 사고를 지양하고 양육행동의 동기적 측면과 결부된 애정차원, 수단적 측면과 결부된 통제 차원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네 개의 하위개념들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21].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육행동의 복잡성이나 심리적 양면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박영애(1995)의 분류를 사용하였다[20].

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적응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각자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다루면서 인생의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적 상황이나 역경을 경험하는 환경 하에서 잘 기능하는 것으로 스트레스에 처음 언급한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다[8]. 자아탄력성의 개념은 내적, 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고, 풍부한 적응능력이라고 하였다[22]. 더 특징적으로 말하면,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 혹은 사건에 있어서 유연한 적응능력을 바탕으로 상황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을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써, 문제해결 전략 가운데 가능한 융통성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23].

자아탄력성에서 사람들은 적응체제를 유지시키는 능력이 다른데, 개인 적응체제의 한쪽 끝에는 연약한 자아(ego-brittle)라고 부르는 영역이고, 연속체의 다른 끝은 탄력적인 자아(ego-resilient)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이어진다. 약한 자아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위협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불안감이 생겨도 이겨 낼 수 있는 전략은 자아통제(self-control)를 유동적으로 변화시킨다. 탄력적인 자아는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게 하고, 삶에서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24].

방수신(2008)은 자아탄력성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성격자원으로 구성개념으로 보았으며, 자아탄력성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신체적으로, 인지적인 변화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들에게 학교생활적응에 꼭 필요한 개인적 성격자원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25]. 이를 통해 볼 때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의 감정능력을 컨트롤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사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로 개발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e scale)는 환경적 맥락이 요구하는 자기-통제 수준을 조정하는 역동적 능력이나 자아탄력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항목은 관계성, 낙천성, 자기통제, 공감 등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24]. Klohen(1996)은 자아탄력성의 공통적인 구성요인으로 자신감 있는 낙관성, 자율성과 생산적인 활동,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온정, 기술적인 표현방법 등이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요인들이 삶에 대한 자신감, 통제감, 긍정적 느낌 등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22]. 윤현희, 홍창혁, 이진환(2001)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는 또래관계와 낙천성, 공감과 자기 수용,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자신감, 이해력, 리더십의 하위요소 5개로 추출하였다[26]. 정혜인(2010)은 학생의 학교적응성 탐색을 위해 초등학교용 자아탄력성척도를 개발에서 선행연구와 검사를 통하여 자아탄력성 척도의 4개 요인인 회복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대처, 인지능력을 추출하였다[27].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혜인(2010)의 분류를 사용하였다[27].

2.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이란 일상을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기-주도적 인지-행동과정으로서 개인의 의도적인 활동이며 합리적인 노력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28]. 즉, 문제해결은 이전의 행동양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이나 전략을 찾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노력과 의식적인 노력은 인지-행동과정의 일환으로서 문제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게 한다. 또한 다양한 대안 가운데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의 목적은 문제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문제로 인해 얻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다[1].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의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

용하여 문제를 풀고 원하는 목표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29].

이러한 과정적 접근 방식은 문제해결능력을 중심 과제로 다루었던 D'Zurilla와 Nezu(1982)에 의해서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30]. D'Zurilla와 Nezu(1982)는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을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시켰다[30]. 즉, 개인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속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는 것은 그 외에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개인마다 서로 다른 대처능력의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마음으로 치밀하게 사회적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대처해 나가는가 하면 당황하여 사회적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제대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는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능력은 중요한 사회적 능력으로서 인간의 심리적 행복, 정신건강,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처전략이다[31]. 이는 매 순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 상황에서 그에 적합한 대처와 인간으로서 사회 적응에 무엇보다 필요한 능력이며, 특히 신체적·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이다.

2.4 선행연구

2.4.1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의 관계

Dyer와 McGuinness(1996)는 탄력성은 환경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증감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으며[32], Masten(2001)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가정 분위기, 원활한 의사소통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3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들은 이제까지 많이 이루어졌다[3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고[3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도 마찬가지로 자아탄력성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36].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아동중심적, 합리적일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의 정서 발달에 많이 좌우된다고 하였다[37].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자

녀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38].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아탄력성 형성의 중요한 변인으로써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4.2 부모양육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부모 양육태도 관련 변인 연구들로는 강상, 권가영과 류경희(2013)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주장하였다[39]. 또한, 임혜림, 김서현과 정익중(2014)이 애착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21].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을 낮추는 등 애정, 지지, 관리, 감독 등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개인의 문제해결 등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양남미, 박현주와 이동귀(2014)의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에 대한 갈등해결능력을 높여준다고 밝히고 있으며[40], 김춘경, 한은수와 조민규(2018)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가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어 개인의 문제해결능력 활동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41]. 이러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에 관계없이 아동의 문제해결능력을 발달시키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3 자아탄력성과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O'Connell-Higgin(1983)은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이 공통적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적이고 환경적인 접근성,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유아 때부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 관심을 얻는 능력 그리고 삶의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42].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항상 신뢰감을 주어 다양한 분야에서 잘 적응하여 대인관계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되었다[43]. 하현주 외(2008)는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결과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하면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탄력의 탄력변인임을 밝혔다[44]. 결국 이것은 자아

탄력적인 사람들이 낮은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더 유연하게 상황에 적응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보호요인으로서 어려운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하고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좌절적이고 스트레스적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적자원으로 효율적인 문제해결능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가설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 H1.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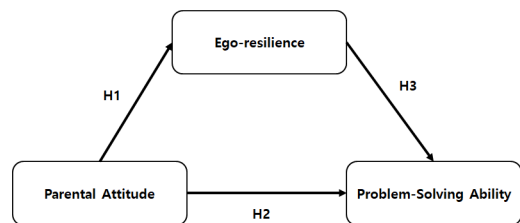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북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아동 25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시기이고 학업성취에서도 학생들 간의 개인차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고학년 아동의 경우 학령기 후기에 속하는 연령으로 구체적 개념뿐 아니라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45],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이 가능하며 자기 보고식 검사를 신뢰롭게 응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 정서 및 사고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46].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28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지에 대해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조사를 시행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250명 중 불성실한 응답 13부를 제외하고 총 23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09명(46.0%), 여학생이 128명(54.0%)이었고, 학년은 6학년이 94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학년이 78명(32.9%), 4학년이 65명(27.4%) 순으로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3.3.1 부모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를 각각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박영애(1995)가 만든 아동용 부모 양육행동 척도[20]를 김문정(2003)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47]. 부모양육태도 도구는 온정·수용 태도, 허용·방임 태도, 거부·제재 태도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요인 영역 당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채점은 각 요인에서 두 차원의 양극개념들로 서가 아닌 개별적 차원들로 간주하여 각 차원마다 그 강도가 높아지는데 따라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부모 양육태도의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부와 모가 각 양육태도를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아동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의 Cronbach's α 는 하위요인 중 '온정·수용 태도'의 부는 0.914, 모는 0.902, '허용·방임 태도'의 부는 0.747, 모는 0.714, '거부·제재 태도'의 부는 0.880, 모는 0.886로 나타났다.

3.3.2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탄력성 도구는 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정혜인(2010)이 학생의 학교 적응성 탐색을 위해 초등학생용 자아탄력성척도를 개발한 설문지가 있는데[27], 이를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자아탄력성 도구는 스트레스대처, 대인관계, 회복능력, 인지능력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하위요인 영역 당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탄력성

의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Cronbach's α 는 하위요인 중 '스트레스대처'는 0.873, '대인관계'는 0.810, '회복능력'은 0.765, '인지능력'은 0.827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 전체는 0.916으로 나타났다.

3.3.3 문제해결능력

아동의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D'zurilla와 Nezu(1990)가 처음 고안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척도(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SPSSI)'[1]를 김영미와 김종술(1992)가 번안하고[48], 송미수(2010)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로 구성되었다[49]. 문제해결능력 도구는 인지척도, 정서척도, 행동척도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하위요인 영역 당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의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의 Cronbach's α 는 하위요인 중 '인지척도'는 0.806, '정서척도'는 0.886, '행동척도'는 0.823로 나타났고 문제해결능력 전체는 0.936으로 나타났다.

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23.0, AMOS 23.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들 간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문제해결능력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Sobel-test를 사용하였다[50].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허용·방임 요인은 요인적재값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탈락하였고,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105.813$, $df=35$, $GFI=0.877$, $NFI=0.901$, $IFI=0.917$, $CFI=0.916$, $RMSEA=0.081$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요인 중 허용·방임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의 요인부하량(λ)이 Table 1과 같이 0.672에서 0.996으로 나타나 각 요인에 관한 타당성이 양호한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문제해결능력의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 Path | | S.T β | S.E. | t-value | Concept reliability | AVE |
|--------------------------|--------------------------|-------------|------|-----------|---------------------|------|
| Father-Parental attitude | → F_rejection-acceptance | .937 | Fix | - | .899 | .819 |
| | → F_dominance-submission | .730 | .053 | 12.185*** | | |
| Mother-Parental attitude | → M_rejection-acceptance | .996 | Fix | - | .913 | .844 |
| | → M_dominance-submission | .672 | .047 | 14.047*** | | |
| Ego-resilience | → Coping with stress | .893 | Fix | - | .914 | .730 |
| | → Interpersonal | .666 | .076 | 9.495*** | | |
| | → Recovery ability | .673 | .063 | 12.032*** | | |
| | → Cognitive ability | .820 | .061 | 16.555*** | | |
| Problem-solving ability | → Cognitive | .907 | Fix | - | .949 | .862 |
| | → Emotion | .908 | .062 | 19.432*** | | |
| | → Behavior | .818 | .053 | 16.599*** | | |

*** $p<.001$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 간 공분산 계산을 통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각 변인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Table 2). 한편, 이러한 상관계수에서 0.90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변수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변수의 제거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될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기준 3과 8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로 볼 수 있다(Kline, 2005)[52].

Table 2. Correlation

| Variables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
| ① | 1 | | | | | | | | | | |
| ② | -.665** | 1 | | | | | | | | | |
| ③ | .723** | -.544** | 1 | | | | | | | | |
| ④ | -.424** | .694** | -.664** | 1 | | | | | | | |
| ⑤ | .615** | -.472** | .716** | -.551** | 1 | | | | | | |
| ⑥ | .638** | -.671** | .453** | -.478** | .457** | 1 | | | | | |
| ⑦ | .686** | -.686** | .564** | -.478** | .569** | .668** | 1 | | | | |
| ⑧ | .593** | -.328** | .732** | -.427** | .762** | .425** | .492** | 1 | | | |
| ⑨ | .240** | -.255** | .314** | -.362** | .316** | .383** | .320** | .287** | 1 | | |
| ⑩ | .208** | -.224** | .265** | -.333** | .266** | .358** | .278** | .248** | .823** | 1 | |
| ⑪ | .222** | -.264** | .217** | -.267** | .232** | .392** | .273** | .233** | .738** | .748** | 1 |
| M | 3.89 | 1.72 | 4.00 | 1.82 | 4.27 | 3.89 | 4.10 | 3.89 | 3.46 | 3.43 | 3.44 |
| SD | .842 | .701 | .769 | .741 | .753 | .861 | .767 | .830 | .707 | .844 | .696 |
| skew | -.879 | 1.567 | -.946 | 1.648 | -1.255 | -.784 | -1.040 | -.779 | -.055 | -.324 | -.071 |
| kurtosis | .602 | 3.202 | .744 | 4.001 | 1.468 | .448 | 1.333 | .647 | -.427 | -.309 | -.318 |

$p<.01$

Parental attitude: ① F_rejection-acceptance, ② F_dominance-submission,

③ M_rejection-acceptance, ④ M_dominance-submission Ego-resilience:

⑤ Coping with stress, ⑥ Interpersonal, ⑦ Recovery ability,

⑧ Cognitive 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⑨ Cognitive, ⑩ Emotion, ⑪ Behavior

4.3 가설검증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104.903$, $df=34$, $GFI=0.877$, $NFI=0.902$, $IFI=0.917$, $CFI=0.916$, $RMSEA=0.086$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경로 계수를 살펴본 결과(Table 3),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의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beta=.309$, $p<.01$)에는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해결능력($\beta=.108$, $p>.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 또한 자아탄력성($\beta=.649$, $p<.001$)에는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해결능력($\beta=.147$, $p>.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은 문제해결능력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596$, $p<.001$).

Table 3.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 Hypothesis | | S.T | β | S.E. | C.R. | P |
|--------------------------|---|-------------------------|------|------|----------|------|
| Father-Parental attitude | → | Ego-resilience | .309 | .070 | 2.771** | .006 |
| Mother-Parental attitude | → | | .649 | .076 | 3.737*** | .000 |
| Ego-resilience | → | Problem-solving ability | .596 | .105 | 7.375*** | .000 |
| Father-Parental attitude | → | | .108 | .111 | .787 | .431 |
| Mother-Parental attitude | → | | .147 | .135 | .897 | .370 |

*** $p < .001$, ** $p < .01$, * $p < .05$

다음 Table 4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부의 양육태도, 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p > .05$), 간접효과 및 총효과 모두 $p < .05$ 수준에 의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Table 4. Indirect effect analysis of Ego-resilience

| Independent Variable | parameter | dependant Variable | Direct effect | | Indirect effect | | Total effect | |
|--------------------------|----------------|-------------------------|---------------|------|-----------------|------|--------------|------|
| | | | Path factor | p | path factor | p | Path factor | p |
| Father-Parental attitude | Ego-resilience | Problem-solving ability | .108 | .431 | .184** | .008 | .292*** | .000 |
| Mother-Parental attitude | | | .147 | .370 | .387*** | .000 | .534*** | .000 |

*** $p < .001$, ** $p < .01$, * $p < .05$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obel-test를 실행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5와 같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매개효과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태도는 문제해결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 분석 결과가 나타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와 모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을 완전 매개하여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5. Sobel-test result of Ego-resilience

| Independent Variable | parameter | dependant Variable | Sobel-test | |
|--------------------------|----------------|-------------------------|------------|------|
| | | | Z-value | P |
| Father-Parental attitude | Ego-resilience | Problem-solving ability | 3.088** | .002 |
| Mother-Parental attitude | | | 4.360*** | .000 |

5. 결론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 즉, 가족, 학교, 사회 등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신체적, 정서적 갈등 속에서 다양한 문제와 도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문제해결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고, 가정과 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문제해결능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 대표 변인들 중,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년 아동 237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28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자료는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Sobel-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와 모의 양육태도는 모두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정희(2007), 조순중(2011)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아동중심적, 합리적일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37,51]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아탄력성 형성의 중요한 변인으로써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크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와 모의 양육태도는 모두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결과[21,39]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일수록,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대상인 초등학교 고학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아동들의 문제해결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현주 외(2008)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다고 한 결과[44]와 일치한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이 낯선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더 유연하게 상황에 적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태도 모두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자녀의 자아탄력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자녀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태도를 온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율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자아탄력성은 향상되고, 그 결과로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도전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체계적인 방식으로의 문제해결을 돕는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초기 청소년기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한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한 것에 의의가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청소년이 된 자녀의 발달과 특성에 야기할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만을 강조했던 연구와는 달리, 자녀의 발달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모두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초기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는 점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 상담 및 자녀교육에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보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들에게 부모의 다정하고 따뜻하며 자율성을 촉진하는 양육방식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북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질문지는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져 측정 방법에 제한점이 있다. 불성실한 응답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고자 한 응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자녀의 지각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어 이는 실제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가 지각한 내용과도 함께 진행된다면 추후 부모상담 및 자녀교육 자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T. J. D'zurilla, A. M. Nezu,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82, pp.156-163, 1990.
- [2] J. A. Park, "Moderating effect of high-risk adolescent's ego-resiliency on relation betwee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nd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Vol.15, pp.97-115, 2020.
- [3] J. M. Kim, M. H. Hyu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parentificat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 The mediating effect of covert narcissis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11, pp.123-139, 2017.
DOI: <https://doi.org/10.21509/kjvs.2017.11.24.11.123>
- [4] M. H. Kim, H. J. Lee, "The effect of mother's acceptance parenting attitude and optimism on children's self-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9, No.2, pp.117-128, 2019.
- [5] H. S. Kim, J. M. Lee, "The effect of adolescent-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ego-resilience on school adjustment: A comparison by gender and school affiliatio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5, pp.91-102, 2018.
- [6] R. F. Bornstein, R. M. O'Neill, "Parental perceptions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180, No.8, pp.475-483, 1992.
DOI: <https://doi.org/10.1097/00005053-199208000-00001>

- [7] T. M. Achenbach, Manual for the Youth Self Report and 1991 Profile, VT: University of Vermont, 1991.
- [8] M. Rutter,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47, No.6, pp.598-611, 1985.
DOI: <https://doi.org/10.1192/bjp.147.6.598>
- [9] M. Rutter,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7, No.3, pp.316-331, 1987.
DOI: <https://doi.org/10.1111/j.1939-0025.1987.tb03541.x>
- [10] D. O. Cicchetti, R. Toth,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apacity for Intimacy, Qualifying paper,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991.
- [11] Y. Z. Park, S. H. Kim, "The effect of young children's self-esteem, resilience and problem behavior on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6, No.4, pp.227-244, 2016.
- [12] E. S. Schaefer,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59, No.2, pp.226-235, 1959.
DOI: <https://doi.org/10.1037/h0041114>
- [13] M. Fishbein, I. Aizen,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1975.
- [14] M. S. Kim, M. H. Le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adolescents' career adaptabil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2, No.1, pp.19-34, 2019.
- [15] P. M. Symonds,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 1949.
- [16] S. B. Lim,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ity and stress coping styl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7, No.1, pp.68-105, 2017.
- [17] H. J. Shim, J.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Journal of Wellness*, Vol.13, No.4, pp.161-173, 2018
DOI: <https://doi.org/10.21097/ksw.2018.11.13.4.161>
- [18] W. C. Becker,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1, No.4, pp.169-208, 1964.
- [19] C. W. Shin, H. N. Lee, C. B. Kim, J. H. Heo,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learning motiv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29, No.2, pp.155-171, 2018.
DOI: <https://doi.org/10.16881/iss.2018.04.29.2.155>
- [20] Y. A. Park, *Parenting Behaviors of Parents and Sibling Relationships the Relationship with Children's Self-Esteem*, Doctoral Thesis, Korea University, 1995.
- [21] H. L. Lim, S. H. Kim, I. J. Jung,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Youth Welfare Society*, Vol.16, No.4, pp.1-27, 2014.
- [22] E. C.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5, pp.1067-1079,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5.1067>
- [23] J. H. Block,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P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pp.39-101), Hillsdale, NJ: Erlbaum, 1980.
- [24] J.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2.349>
- [25] S. S. Ba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Master's Thesi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8.
- [26] H. H. Yun, C. H. Hong, J. H. Lee, "Development of parent form ego-resilience scale", *Journal of Institute for Psychological Science*, Vol.10, pp.33-53, 2001.
- [27] H. I. Jung, "Development of self-resilience scale for infant's school adjustment searching", *Elementary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Vol.23, No.2, pp.361-382, 2010.
- [28] Y. J. Jung, "A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tu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skill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8, pp.90-97,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8.090>
- [29] R. Fisher, Teaching Children to Think, Oxford. Basic Blackwell Ltd., 1990.
- [30] T. J. D'Zurilla, A. M. Nezu, Social Problem-Solving in Adults. In P. C. Kendall(Ed.), *Advances in Cognitive Behavioral Research and Theory*(pp.201-274), New York: Academic Press, 1982.
- [31] M. J. Lee, "Communication pattern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the internet game addicts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9, No.11, pp.108-119, 2009.
DOI: <https://doi.org/10.5392/JKCA.2009.9.11.108>
- [32] J. G. Dyer, T. M. McGuinness,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ol.10, No.5, pp.276-282, 1996.
DOI: [https://doi.org/10.1016/S0883-9417\(96\)80036-7](https://doi.org/10.1016/S0883-9417(96)80036-7)
- [33] A. S. Masten,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56, No.3, pp.227-238, 2001.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6.3.227>
- [34] I. S.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 Perception of Patents' Child-rearing Attitude and their Learned Helplessness*,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6.
- [35] S. H. Lim, J. S. Myung,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that perceive Adolescents Impact on self-esteem: Mediated effect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12, pp.327-347, 2016.
- [36] J. H.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Attitude and Ego-resilience,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Perceived by Adolescents*,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9.
- [37] S. H. Cho, Relationships among oh Parents' Rearing Attitudes, Ego-resilience,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1.
- [38] E. M. Lee, I. J. Park,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bonding and children's ego-resilienc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7, No.1, pp.3-24, 2002
- [39] S. Kang, K. Y. Kwon, K. H. Ryu, "The effects of mother and father's affectionate child-rearing attitudes on the social compet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3, No.4, pp.329-356, 2013.
- [40] N. M. Yang, H. J. Park, D. G.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warm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interpersonal conflict-resolution abil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and self-estee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4, pp.1515-1529, 2014.
- [41] C. K. Kim, E. S. Han, M. K. Cho, "A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ing, empathy and problem behavior for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ype of attach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pp.371-397, 2018.
- [42] R. O'Connell-Higgins,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apacity for Intimacy. Qualifying paper.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983.
- [43] Y. K. S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School Adaptation*,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06.
- [44] H. J. Ha, W. M. Park, M. S. Park, S. M. Chun,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Vol.7, No.1, pp.1-19, 2008.
- [45] J. H.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ous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the School Record of Elementary School Pupils*,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6.
- [46] P. J. Oh, *Difference in Children's Self-concepts Following Correspondence in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1.
- [47] M. J. Kim,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their Behavior Problems*, Master's Thesis, Yeonsei University, 2003.
- [48] Y. M. Kim, J. S. Kim,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depressed pati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Psychiatry*, Vol.17, pp.130-138, 1992.
- [49] M. S. Song, *Impact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mong Elementary Students: Through the Parameter of Self-efficacy*,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2010.
- [50]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51] J. H. Shin, *The Relation between Rearing-attitude of Parents Perceived by Child and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07.
- [52]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2015.

송민교(Min-Gyo Song)

[정회원]



- 2008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졸업
- 2018년 8월 : 국립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교육학 석사)
- 2021년 2월: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박사수료)

<관심분야>

정서교육, 음악교육, 음악교육 프로그램